

건설안전진단의 업무에 종사하며

김 석 조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토목진단부 대리

건설기술시장의 새로운 분야로서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본협회에 입사하게 된 것은 1989년 12월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장래성, 기술의 축적, 직업의 만족성 등 나름대로의 기대와 부푼 희망을 갖고 입사하게 된 것이며 나 역시 앞서의 조건을 심사 숙고하고 주위 선배님의 조언 등에 힘입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처음 입사와 동시에 나에게 다가온 업무는 현장의 실무적인 기술적 해결을 위해 시공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로서 각종 기술적, 시공적인 실무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기술적 자료의 정리 등이 요구되어 그 범위와 일의 무게가 새로 시작하는 나에게는 당혹감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으나 오랜 동안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위원님들과 관련 기술사, 학계 지도교수 등 다수의 선배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차차 안전진단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호감과 의욕이 생겨나게 되었다.

안전진단은 최초 의뢰와 동시에 현장의 출장 계획이 수립되고 현장조사를 착수하게 되며 이때 수집된 조사자료를 토대로 구조계산, 대책모색 등의 내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안전진단은 문제점의 발생에 따른 의뢰로서 현장답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현장실측이 필요하므로 불특정적인 현장의 의뢰상황에 따라 현장출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대학과정에서 배운 이론적인 짧은 지식으로 다수의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에 두려움도 컸으나 새롭게 접하는 시공현장이 모두 실력배양의 교육장임을 생각할 때 결연한 마음으로

업회인 소리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불현듯 교육부에서 협회의 직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대한 원고를 부탁해 왔을 때 아직은 산을 오르는 거북이의 심정이므로 거부할까하는 생각도 했으나 지금껏 안전진단의 업무를 착수해온 이제까지의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되어 펜을 들게 되었다.

지금까지 약 155건으로 적지 않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붕괴사고가 있었던 팔당대교현장, 지하철현장과 전국 5개소의 항만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해 현장마다 안전의식과 실천의 중요성 및 기술적인 향상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피부로 느껴져왔다.

토목현장은 대다수가 외지인 것이 특성인데 출장에 남다른 마음자세를 갖게 한 현장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뱃문재 터널로서 지역적으로 외진 산중턱에 위치하고 터널의 지반 지질조건이 열악한 탄질층의 연약지반으로 터널굴착 시공중 낙반·붕락이 반복되고 준공 후에도 라이닝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여 조사한 바 있는 현장이다.

1990년 처음 그곳에 출장을 갈 때는 지역적인 위치조건상 강원도의 수려한 경치구경을 하며 출발했으며 그곳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도시생활과 사무실의 나른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 흥가분한 기분마저 들었으나 막상 현장사무실에서 현황설명과 간단한 자료를 수집하고 터널 막장으로 향해 그곳에서 석탄재를 뒤집어 쓴 탄광 인부같은 현장의 관계자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였을 때 나는 마음자세를 달리하고 적극적인 조사자로서의 태도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본터널은 NATM 터널 시공에 의한 막장발파 굴착방식이므로 막장위치에서의 낙반, 붕괴, 매몰 및 터널 상단부 지반 침하, 매몰에 수반되는 2차적인 터널단면 붕괴상황을 조사하고 계측자료, 암질의 기본탐사와 지층, 지질구조 검사 등을 발파시공 PATTERN에 입각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본 터널구간에 대하여는 문제발생구간에 대한 보강 GROUTING과 PATTERN의 변경시공에 의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4년 여에 걸친 안전진단 의뢰 및 준공 후 안전진단으로 산악 터널의 시공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현장으로 기억된다.

현재는 수많은 공종별에 따라 수회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 아래 건설안전점검도 의무화하고 있는 이때 안전진단업무는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어질 것이며 더불어 본업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또한 건설분야의 새로운 전문분야로서 건설 안전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관심과 안전의식의 함양이 더욱 고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맺음한다. ■

